



REPORT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_학교 교육 중심으로

과목명	NCS 기반 프로그램 개발
분반	9 분반
학부	컴퓨터 공학부
학번	2017120111
이름	정성오
제출일	2024 년 4 월 21 일 일요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필자는 현 상황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몇가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사교육비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GDP의 약 3.7%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인 2.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높은 사교육 비는 두가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첫번째로 자녀 교육에 많은 부담을 준다. 2023.05.09일자의 어느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녀 1명을 키우는데 3억 65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사회 초년생들이 자식을 낳는데 큰 고민을 하게 만들 것이며, 현대사회의 출산율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높은 사교육비가 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교육 양극화 문제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계층에서는 더 많은, 더 좋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하위 계층은 그렇지 못하여 상위 계층의 아이들과 하위 계층의 아이들의 교육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입과 직결되어 있는 수능은 공평하게 시험 등수로 성적이 매겨지지만, 이러한 교육 양극화 문제를 배경으로 안고 있는 상황에선 더이상 공평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다음 A와 B가 사회에 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보자. 부유한 가정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A는 고가의 많은 사교육을 받았다. 모르는 내용을 바로바로 물어보고,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주는 뛰어난 강사가 항상 주위에 있었고, 대학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받다 보니 비교적 수월하게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반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교육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낸 B씨는 평범한 대학에 입학하였다. 사회에 진출한 두 사람에 대한 주변 인식은 다르다. A씨는 명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대기업 인사 담당관들에게도 좋은 인식을 심어준다. 따라서 A씨는 사회 고위 계층으로 갈 기회가 많다. 반면 B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B는 A를 부러워하는 대상이며, 평범한 대학도 대기업 입사에 있어서 별다른 장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B는 평범한 직장을 갖고 평범한 가정을 꾸릴 확률이 비교적 높을 것이다. 입시 결과에 따라 각기 다른 사회의 위치에 도달한 A와 B, 그리고 주변 지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아마 자신의 자식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을 더욱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현대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도나도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는 사교육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가 초래된다. 또한 모두가 대학 진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과도한 경쟁을 펼쳐, 사교육비 증가를 더욱더 가속시킨다.

그렇다면 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곳에서 대학 입시 결과를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을까? 필자는 “대학 입시 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가장 간단해서” 라고 생각한다. 처음 만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든다. 사람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따라서 학창시절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알기 위해선 오랜 대화와 그에 대한 증명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대학 입시 성적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만큼 간단한 것도 없다. 그냥 “좋은 대학 나왔으니 학창시절 공부는 열심히 했겠네” 라고 판단하면 그만이

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의 많은 곳에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도구인 대학 입시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이로 인해 대다수가 과도한 입시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입시 경쟁에 큰 도움이 되는 사교육을 찾게 된다. 이는 높은 사교육비를 야기하며, 현대 사회의 교육 양극화 현상, 더 나아가 출산율 저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 사회의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대 사회 교육의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대학 진학이라는 단답형 목표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학 입시 결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연스럽게 돌려야 할 것이다. 사회의 종착지(대기업, 공기업 등의 회사들)에서는 자신들 회사의 목표에 맞는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그 평가 기준에 맞추어 채용에 임해야 한다.(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형식) 이로써 학벌 중심의 채용은 없어지고 대학 진학의 중요성은 분산될 수 있다.

고등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빠르게 원하는 진로를 찾고, 대학 입시 준비에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진로에 맞는 역량을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기업들과 협업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과목)을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성인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역량을 얻기 위한 길을 더 넓혀가야 한다. 이로써 대학 입시에 대한 중요성은 더 분산될 수 있다.

대학 진학이라는 단답형 목표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사회의 종착지에서는 역량 중심의 채용을 진행하고, 고등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빠르게 찾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성인 교육 시스템을 확대하여 원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언제든지 원하는 직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한다. 즉, 경쟁이 아닌 많은 기회를 주는 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교육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https://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966>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33>
https://www.youtube.com/watch?v=3Ask_YN1XiM

